정부와의 해법 고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간담회서 속내 밝혀

조계종이 최근 정부 · 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을 금한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제한적인 접촉을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정부 · 여당과의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 조계종이 대정부 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교계 기자들을 만나 "절집 일이 업무상 관을 통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 고심 중이다. 내부적으로도 부처님오신날 전에 정부 · 여당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고 밝혔다.

내부 결속 다지려 정부 접촉 금지했다

자성과 쇄신 위한 5대결사 끝까지 한다

총무원장 스님은 "정부 · 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 제한은 내부적인 의지결속을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종단 내 민족문화수호와 자성 · 쇄신 의지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사들로 인해 결사의 본뜻이 왜곡될 수 있어 분위기 단속상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결의대회는 민족문화에 대한 중요성, 종교편향 문제, 자성과 쇄신 5대결사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5대결사는 임기내 계속될 것이며, 사회적 · 국민적 운동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결의대회 참석 차 전국 교구본사를 돌다보니 분위기상 마지못해 따라하는 본사, 적극적으로 봉행하는 본사 등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면서도 "종단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참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했던 범불교도대회가 1회성 행사로 정치권 배타의 성격이 강했다면,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는 모든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 인과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며 범불교도대회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현수막 철거, 정부 · 여당관계자의 신행 목적의 사찰 방문을 허용한 일련의 유화조치에 대해 "문화재 등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인식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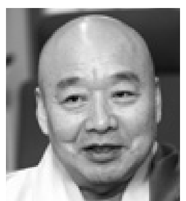
스님은 "본말사주지회의 등에서 총무원의 정부 · 여당인사와의 접촉불가 방침에 거센 반발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국사 주지 스님은 직접 만나 이야기도 했다. 반발이 아니라 건의였다"며 종단 내부적으로도 화합과 리더십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청불회 법회 참석도 문제될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승 스님은 "전쟁 중에 사신도 왕래했다"며 "108일 기도회향한 마당에 포교까지 등한시 할 수 없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야할 출가자가 청와대라고 못갈 이유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조동섭 기자

기획실장 정만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기획실장 정만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임 기획실장스님은 종단의 부장을 두루 역임해 종단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업무파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총무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7년 관음사에서 학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부장, 호법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前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건강을 이유로 1일 급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조동섭 기자

김영국 칼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은 〈잡아함〉 불방일경에서 "나는 언제나 모든 중생의 좋은 벗이 되어 그들의 근심, 슬픔, 번민, 고통을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뇌를 벗어나게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중생에게 닥친 현실은 괴롭고 수행자들마저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납의중경에 보면 마하카샤파가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다른 수행자들이 보고 업신여겼다. 그러나 부처님은 당신 자리의 반을 내주며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고, 기쁘게 하는 마음, 평등하게 보는 마음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칭찬하셨다. 이 시대에 자리의 전부를 내줄 수행자는 없는가.

수행결사를 하고, 생명결사를 하고, 나눔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사에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고, 평등하게 보는 마음"이 안보인다.

그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잡아함〉 회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반열반(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마땅히 나를 돌아보게 하라. 혹 내 몸이나 입이나 마음에 꾸짖을 만한 일은 없는가."

종단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수행자들은 부처님처럼 자신에게 꾸짖을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또 실천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종족 출신입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어떤 종족인가를 묻지 말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고 물어라."

〈잡아함〉 손타리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지금 수행자들은 내가 총무원장이네, 종회의원이네, 본사주지이네 하고 출신만 강조하지 과연 중생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있는 스님들,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스스로 악하고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으로는 잡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헛된 일에 불과한 것인가.

소위 5대 결사가 세상과 상관없이 소수 불교인들만의 초연한 신선놀음이 안되어야 조계종단이 강조하는 불교중흥이 실현되는 것이다.

"한국 불교 온정에 감사"

일한불교교류協, 자승 스님 예방

일한불교교류협의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 불교가 일본 지진피해에 보여준 성의에 감사를 표했다.

이 날 예방에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 니시오카 료코 이사장 스님과 노자와 류코 사무총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니시오카 료코 이사장 스님은 "한국의 온정에 감사드린다. 한국 불교가 보여 준 모습에 일본에서도 많이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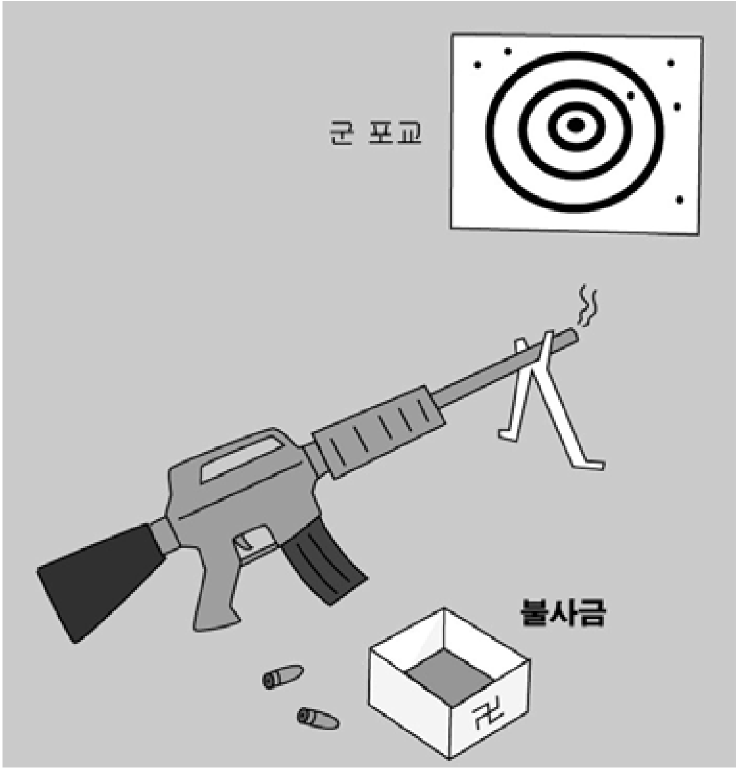
자승 스님은 "뉴스를 통해 피해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답했다.

니시오카 료코 이사장은 5월로 예정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양측은 일본측의 상황을 감안해 협의회를 가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자승 스님은 또 지진 발생 49일이 되는 4월 28일에 피해 지역 인근 사찰에서 한국 전통 불교방식의 천도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기범 기자

"4대강 복원을 위해 40배를 올립니다" 불교를 비롯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 종단 연대회의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생명 · 평화 기도회'를 열었다. 종단 연대회의는 평화 기도회에서 "4대강 복원운동을 펼치고, 4 · 27 재보궐 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4대강 토건사업을 지지하는 반환경, 반생명, 반평화 인물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날 불교계에서 참석한 스님과 신도들은 4대강 살리기를 염원하며 40배를 올렸다. 박기범 기자

박구원 만평



검찰, 자승 스님 재수사

이례적 조치…'조계종 길들이기' 의혹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발표됐다.

서울고검은 4월 6일 멸빈된 성호 스님(정한영)이 총무원장 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법이 직접 공소하지 않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때문에 검찰의 조치를 두고 민족문화수호운동 등으로 정부와 냉각 관계인 '조계종 길들이기' 내지 "본격적인 불교계 탄압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수사를 종결짓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이다. 승적의혹 등과 관련해 재수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총무원장스님 소환 등이 언급됐으나, 검찰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동섭 기자

"국가 이미지에 중요"

MB, 불교 문화 발언

"사찰 등 전통문화 가치 발굴과 확산하는 일은 한국의 이미지 신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8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불교문화 유산을 전통문화의 보존과 유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불교문화의 보존 문제가 종교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불가사의 氣

세계최초 ! 최장거리 ! 청정기 방출(放出) 누구나 확인 할수 있다.

水脈 100% 차단

住持 : 령산 김 해봉

氣 氣
氣 특허등록
氣 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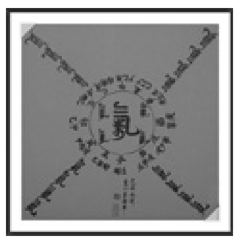
특허등록 제 40-0824632호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저작권등록)
제1호 제 C-2008-002154호
제2호 제 C-2008-002155호
제3호 제 C-2009-002114 호

[카드 기부]

[자동차 기부]

[제1호]

[제2호]


[제3호]

※ 카드氣 방출거리 3M 10cm (차량, 소지카드) 황금 & 야광

※ 청기를 방출하며 방출거리는 7M 10cm (액자)

◈ 신비(神秘)의 氣 (不可思議氣) 방출(放出) 氣符는 모든 재액(災厄)을 소멸부(消滅符)

○ 氣 는 인체의 근본이다.
○ 氣 가 왕성(旺盛)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 氣穴이 강장(强壯)하면 처자궁(妻子宮)이 좋다.
○ 氣穴이 부족(不足)하면 처자궁(妻子宮)이 나쁘다.
○ 氣穴이 부족(不足)하면 병(病)이 저절로 생긴다.
○ 氣穴이 왕성(旺盛)하면 병(病)이 저절로 치유된다.
○ 氣 가 왕성(旺盛)하면 학업(學業) 및 사업(事業)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 번개 = 전기 . 氣 = 전기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이다.
○ 수맥이 흐르면 흉(凶)가과 된다.
○ 수맥이 흐르는 곳에 오래 기거 하게 되면 오대성인 병을 본인도 모르게 온다.

◎ 지구상(地球上) 모든 생명체(生命體)는 기(氣)로서 이루어진 것
본五氣는혼(魂)신(神)의(意)백(魄)정(精)이있다.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고도 신비스러운 강력한 청정기(淸淨氣)를 방출(放出)하며 약(弱)하고 나쁜운기를 제거하고 강력한 좋은운기로 바뀌면서 가정(家庭)에 나쁜 탁기(濁氣)를 제거, 우리 몸 속에 흐르고 있는 탁기(濁氣)를 제거하며 기(氣)를 받으면 만사형통(萬事亨通)모든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

▣ 기부 사용처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 스님기거방, 택시회사 운전자. 기업체,
사업인, 관공서, 가정 기부 사용, 각 종교, 사회단체, 크게 성공을 원하는 업체,
좋은 운기를 크게 받아 화목, 건강, 만복을 얻으리라.

주 문 문의처
주소 : 부산 부산진구 양정 2동 135-4
직통 : 051)852-1810, FAX)867-5773 / 핸드폰 011-598-5470

다음카페 : 천운사